

2017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제주도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높이 77m의 작은 언덕형태의 오르이지만 해안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재 지층속에 남겨진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로 인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월봉은 약 18,000년전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잘게 부서진 화산재가 주변에 떨어지면서 만든 고리모양 화산체의 일부이다. 수월봉 일대를 뒤덮었던 화산재는 딱딱한 용암에 비해 식물이 자라기 좋은 기름진 토양이 됐고, 기름진 토양은 신식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

A course 수월봉 영알길 코스

수월봉과 영알길 화산탄 및 진지동굴 등을 탐방하는 코스

A1 녹고의 눈물 [지질관찰지점]

전설에 따르면, 어머니의 병 치유를 위해 약초를 찾아 절벽을 오르다 누이 수월이가 떨어져 죽고 동생 녹고도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죽고 만다. 그 이후사람들은 수월봉 절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녹고의 눈물’이라 불렀고, 남매의 효심을 기려 이언덕을 ‘녹고물 오름’이라 불렀다.

거리 500m 시간 15분

A2 경도진지 [역사관찰지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수월봉 해안에는 미군이 고산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경도에서 바다로 직접 발진하는 일본군 자살특공용 보트와 탄약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다.

거리 500m 시간 15분

A3 화산재 지층과 화산탄 [지질관찰지점]

수월봉 해안 절벽 곳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화산탄 (화산암괴)들이 박혀있고, 지층이 휘어진 탄낭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무수히 많은 화산탄은 수월봉의 화산 활동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 지 짐작케 한다.

거리 1.5km 시간 20분

A4 수월봉 정상, 고산기상대 [생물관찰지점]

수월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폭발적으로 분출 하면서 만든 고리모양 화산체의 일부이며 차귀도, 당산봉 일대와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수월봉 정상에는 고산기상대가 위치해 있다.

A5 영알과 화산재 지층 [지질관찰지점]

고산기상대 아래 쪽 바닷가 영알길 절벽 내부에는 수월봉 화산 분출 당시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분출물이 쌓인 화산재 지층이 약 70m 두께로 기왓장처럼 차곡 차곡 쌓여 있다.

거리 400m 시간 10분

A6 검은모래 해변 [생물관찰지점]

수월봉 해안의 검은 모래는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던 검은색 현무암 알갱이를 이 파도에 쪼여 부서져 바닷가에 쌓인 것이다. 검은모래 해변에는 돛, 지층이, 모지반, 미역과 같은 갈조류가 무성하여 마을 공동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리 200m 시간 10분

A7 해녀의 집 [역사관찰지점]

‘해녀(海女)’는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물질은 원래 남자의 몫이었으나, 조선시대 때 힘든 일을 피해서 남자들이 제주도를 떠나버리면서 여성의 일로 남게 되었다. 해녀의 수는 매년 감소하여 현재 약 4천5백여명이 남아있다.

B course 당산봉 트레일 코스

당산봉 일대를 탐방하는 코스

B1 당산봉의 유래 [역사관찰지점]

당산봉은 용머리와 신방산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오래된 화산체중의 하나이다. 당산봉의 명칭은 오래전부터 뱀을 제사지내는 신당(차귀당)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붙여졌다.

거리 250m 시간 10분

B2 당산봉의 지질 (거북바위) [지질관찰지점]

당산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체이다. 이 수성화산체는 당산봉의 외벽을 이루고 있지만 내부에는 분식(송이)로 구성된 알오름이 있으며, 분화구는 북쪽으로 열린 말발굽 형태를 보인다.

거리 300m 시간 10분

B3 당산봉의 역사 [역사관찰지점]

당산봉은 봉수대가 설치되기 이전에 뱀을 신으로 모시는 차귀당이 있어 차귀약(당산)이라 부르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봉화를 올렸던 곳 이라하여 당산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거리 1.2km 시간 30분

B4 생이가정 [지질관찰지점]

생이가정은 제주어로 새(鳥)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가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길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 절벽은 당산봉을 형성한 화산재가 쌓이고 이후 분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이 화산재를 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리 1km 시간 30분

B5 당산봉 가마우지 [생물관찰지점]

가마우지는 잠수성이 뛰어난 물새지만 기름생이 없어 잠수를 한 후에는 깃털을 말리기 위해 주로 갯바위나 해안절벽을 이용하는데, 깃털을 말리면서 배설하는 습성 때문에 화산재 절벽이 하얗게 되었다.

거리 400m 시간 10분

B6 당산봉수 [역사관찰지점]

현재 해안초소가 있는 곳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자리이다. 당산봉 봉수는 조선시대 제주도에 25개 봉수대 중 하나로 유사시 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봉수대는 동쪽으로 모슬봉수대, 서쪽으로 만조봉수대와 연결되어 있다.

New course 절부암길 코스

당산봉과 절부암을 거쳐 상계물까지 탐방하는 코스

B1 당산봉의 유래 [역사관찰지점]

거리 200m 시간 10분

B6 당산봉수 [역사관찰지점]

거리 400m 시간 10분

B5 당산봉 가마우지 [생물관찰지점]

거리 1km 시간 30분

B4 생이가정 [지질관찰지점]

거리 1.2km 시간 20분

N1 성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관 [역사관찰지점]

김대건 신부(1822~1846)가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8월 31일 라파엘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 조선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28일간의 표류 끝에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착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제주 지역에서 한국 최초 신부의 첫 번째 미사와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김대건 신부(1822~1846)가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8월 31일 라파엘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 조선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28일간의 표류 끝에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착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제주 지역에서 한국 최초 신부의 첫 번째 미사와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거리 150m 시간 2분

N2 절부암 [역사관찰지점]

1981년 8월 26일 제주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바위 절부암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조난당한 남편을 기다리다 못하여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통한 사연이 전해오는 곳이다. 1866년 이를 신통히 여긴 판관 신재우가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기게 하고 부부를 합장하였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전을 마련하여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들의 산소를 소분하고 제사를 지낸다.

거리 3.5km 시간 50분

N3 상계물

신창리 1322-4번지 일대 신창리 해안 도로변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발으로 돌담을 둘러친 남탕과 여탕이 있다. 바닷가에서 새로 발견한 “갯물”이라는 뜻으로 ‘신포수’(新浦水)라고도 불리며 여름철에 물이 매우 차다.

